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학개 2:10-19]

설교자: 마티아스 샷트 (Matthias Schat)

10 다리오왕 이년 구월 이십 사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11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12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썼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13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14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15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와 전에 돌이 돌 위에 첩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16 그 때에는 이십석 곡식더미에 이른즉 십석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오십 그릇을 길으려 이른즉 이십 그릇 뿐이었던느니라 17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18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구월 이십 사일 곧 여호와와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19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학개가 유다 백성에게 전한 네 번째 말씀은 성전 기초를 놓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전해졌습니다. 학개는 이 시간을 통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읍니다. 자격 없고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1, 부정한 사람들- 학개는 요점을 만들기 위해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거룩함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진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반면에 부정함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쉽게 퍼집니다. 더러운 손이 어디에나 더러운 흔적을 남기듯이 말입니다. 학개는 이 예를 사용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진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들의 모든 예배는 죄와 이기적인 마음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죄가 우리 안에 있어 우리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깨끗하고 거듭난 마음 없이 예배와 종교의식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결해져야만 합니다.

2, 무시되는 징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정결해야 됨을 지적해 오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제적 기근을 내리셔서 그들은 징계하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 사건들과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부정함을 보게 하시며 우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십니다. 우리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드러지는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잘 살피고 검토해야만 합니다.

3, 과분한 축복-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정한 백성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본문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일해 오셨기 때문이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부정함을 깨끗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포함한 그 분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알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며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고 중요한 축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용서와 유산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분 안에서 주어지는 총만한 축복은 다가올 우리의 삶에 고대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되새기고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마음 다해 그 분을 예배하길 갈망하는 일들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